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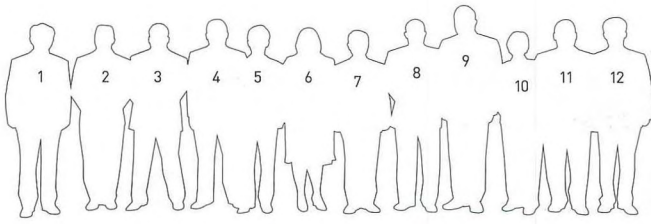


2013 제2차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

치안개선 문제는 개발 이슈 한국의 선진 교정을 중미에 전수하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는 중미 국가 8개국 교정행정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교정 현황과 교정 혁신 사례 등을 발표하고, 한·중미 간 교정행정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13 제2차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왼쪽부터) 장명수 외교부 중남미국장, 플로레스 온두라스 특별예방국장, 고메스 멕시코 교정본부장, 에르난데스 엘살바도르 교정본부장, 김태훈 교정본부장, 리베라 코스타리카 교정차관,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 올긴 도미니카공화국 교정청장, 까마르고 과테말라 교정국장, 살가도 니카라과 교정본부장, 알바라도 파나마 교정국장, 신용해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대한민국과 중미 국가가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져왔고,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미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인 ‘치안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김태훈 교정본부장이 환영사를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이제껏 중미 국가와의 교류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세미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중미 간 교정분야에 있어 교류협력이 내실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미 8개국 교정분야 최고책임자들을 환영했다.

리베라 코스타리카 교정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정분야 교류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국의 모범사례와 기술 접목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중미 국가의 교정시설은 열악하다.”며 “과밀수용에다 환경적으로 부정적 상황들이 너무 많기에 한국의 협력을 받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새로운 전략을 갖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미 치안협력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날 ‘2013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중미 국가는 SICA(중미통합체제, 1983년 발족한 중미지역 최대 정치·경제적 통합체제로서 중미 8개국이 참여) 회원국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와 멕시코이다. 또한 지난해 제1차 한·중미 경찰분야 치안협력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교류협력 세미나로서 교정개선이 시급한 중미 국가들에게 선진 교정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행정



과 시스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중미 간의 우호협력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미국가들의 도움의 손길이 교류협력의 첫 시작이었고 이후 교역·투자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개발경험 공유, 치안, 에너지·인프라, ICT,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교류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특히 2010년 한-SICA 정상회의에서 중미지역의 치안개선 노력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이후 대중남미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중미 치안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SICA 회원국을 대상으로 치안인력 방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치안협력사절단 파견, 치안인프라 전수사업 및 현지 치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시행하며 활기를 띄고 있다. 게다가 2011년부터 ‘중미치안전략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 데 이어 지난해 중미 각국의 치안기관장을 초청해 ‘제1차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했고, 마침내 지속적인 치안협력을 위한 방안을 이어가기 위해 제2차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과밀수용 개선문제 시급한 중미

제2차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는 ‘각국의 교정 현황과 개선 노력’을 주제로 한 제1세션과 ‘한·중미 교정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담은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중미 참가국과 한국의 교정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리베라 코스타리카 교정차관은 ‘중미 교정정책 및 SICA 차원의 정책 공조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SICA 회원국은 중미 치안 전략으로 범죄 예방, 폭력 예방, 기관 역량 강화,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 4가지 중점 사안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인프라 개선, 구금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족으로 인프라 개선과 구금자 처우 개선은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2012년 산호세에서 1차 회의를 거쳐 지난달 엘살바도르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중미 교정정책의 SICA 정책 공조 방안은 의장국인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초안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의 ‘교정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올긴 도미니카공화국 교정청장은 “도미니카는 전통 교정 모델에서 새로운 교정 모델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전체 36개 교정시설 중 16개가 새로운 시설로 변모했으며 처우개선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률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경비 인력은 국립교정학교를 통해 양성하고 있으며, 군인·경찰 인력을 교도관으로 점차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르난데스 엘살바도르 교정본부장은 “SICA 회원국의 공통 문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며, 1910년 신축 이후 교정시설이 건축되지 않아 타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용자 중 18세~26세 청년 비중이 71.69%(19,078명)를 차지하고 10년 이내 사회로 복귀하는 수용자가 46.91%(14,167명)나 되어 사회 적응과 재활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까마르고 과테말라 교정국장도 과밀수용된 상태를 설명하며 부족한 교정시설은 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경비시스템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살가도 니카라과 교정본부장은 “1979년 혁명 이전의 교도소는 군대와 경찰이 관리했다.”고 설명하며 “혁명 이후부터 2006년까지 7개 교정시설과 26개 생산적 농장형 교도소를 활발히 운영했다가 사라지면서 교정공무원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7년 오르테가 정부가 출범한 뒤 사법기관과 함께 교정·치안 체계를 구성해 교정시설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은 1950년대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한국 교정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시설 확충, 처우개선, 현대화·과학화 시스템 도입,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선진교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교정 발전에 감동받았다”

플로레스 온두라스 특별예방국장은 중미 국가 중 가장 낙후된 나라가 온두라스라고 밝히며 과밀 정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페드로 교도소는 교도관 4명이 2,25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수용자의 식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25센트 정도라며 수용자 관리와 처우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교정시설 신축 계획을 마련했지만 재원 부족 문제가 가장 크라며 국제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알바라도 파나마 교정국장은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인접국 시설을 벤치마킹하며 교정시설과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1970~1980년에 지어진 군사시설과 경찰시설을 여전히 교정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교도소 신축을 통해 처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라 코스타리카 교정차관은 폐쇄형 프로그램, 준기관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관 내 생산 활동을 장려하여 수용자의 69.6%가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도소 시설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개정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메스 멕시코 교정본부장은 “국가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연방교정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용자의 안정과 인간적인 행복권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자가 스스로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알고 바뀌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제2세션에서는 ‘한·중미 교정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한국의 교정본부와 외교부의 협력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김안식 교정본부 보안과장은 국제수용자 이송, 교정관련 국제회의의 참가, 한·일 교도관 무도대회, 한·중 교정행정협의회, 교정공무원 장·단기연수, 단기시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중미 교정분야 국제협력에 대해서 “처우프로그램과 교정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통해 수용자 안전 관리와 교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희망했다.

조영준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은 ‘한국의 대중미 치안 협력 현

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1996년부터 개발원조 사업, 국내 초청연수, 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 등에 CCTV 구축 및 경찰차량 이동식 조화기 탑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안협력 세미나,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경찰청 선진 인프라 전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안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영준 과장은 치안 문제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문제로 언급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치안·교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안은 국가 개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숨쉬는 공기처럼 걸쭉되면 모든 게 망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미 국가 모두에게 치안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편,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중미 8개국 교정시설 최고책임자들을 환영하는 만찬의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중미 8개국 참가자들은 서울남부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참관하며 선진 교정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확인했다.

